

국보관

필바가라상

국보

오래 전부터 팔부중의 한 명인 필바가라로 여겨진 이 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팔부중에서도 두드러집니다.

첫 번째로 필바가라라는 이름은 고후쿠지 절의 상에만 특별히 붙여진 것으로 이외에는 일본 불교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. 원래는 인도 신화에서 유래한 마호라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마호라가는 뱀이나 뱀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악사 등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됩니다.

두 번째로 이 상은 다른 여러 팔부중상과 마찬가지로 갑옷을 입은 모습이지만, 얼굴은 소년이 아닌 수염을 기른 중년 남성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.

다른 팔부중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도 734년의 작품으로 탈활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